숫자로 본 KIA 1위 10大 원인

살맛나게 해준 기아야구…우승 이유 있었다

1 1위 향한 하나된 분위기

2008시즌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미야자키 스프링 캠프까지 KIA 선수단은 어느때보다 열정적으로 2009시즌을 준비했다. 서재응·이재주 등 고참급 선수들도 마무리 캠프에서 솔선수범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최희섭과 이현곤 등은 자비로 각각 포항과 필리핀에 자체 캠프를 차리는 열정까지 보였다. 훈련과 팀을 우선으로 한 선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달라진 KIA를 보여줬다.

선수들의 목표는 4강을 넘어, 팀의 우승이었다. 새로 주장을 맡은 김상훈은 안방마님의 역할까지 소화해내며 팀의 구심점이 됐다.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세워지면서 KIA 덕아웃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또 비난과 질책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통한 팀문화가 1위 행진의 발판이 됐다.

2 조범현호 출범 2년 새 바람

후반기 부진속에 6위로 시즌을 마감해야 했던 2008년. 새로 팀을 맡은 조범현 감독은 4강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팬들의 비난을 받으며 사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 시즌 '조갈량' 이라는 별명과 함께인내로 변화를 이끌었던 조 감독의 리더십이 그 빛을 발했다. 혹독한 훈련과 경쟁을 통한 팀 체질 개선 노력의 성과가 드러난 해였다.

끊임없는 훈련으로 쌓은 체력은 '8월 돌풍'의 발판이 됐다. 본격적인 내부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향상됐고 실력 향상도 동시에 꾀할 수 있었다.

현실보다는 미래를 위해 인내를 발휘했던 조 감독의 리더십은 선수들의 자발적인 호응 속에 예상보다 빨리 1위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3 3루수 김상현의 狂打

올 시즌 LG에서 친정 KIA로 돌아온 김상현은 팀의 '해결사'로 거듭나며 우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 출발부터 심상치 않았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상현은 트레이드 1주일 만에 만루홈런으로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다. 시즌 1호 홈런이자 자신의 통산 첫 만루 홈런을 기록한 이후 김상현은 시즌 2·3호를 모두 만루홈런으로 장식하며 '만루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찬스에는 늘 김상현이 있었다. 김상현은 올 시즌 36개의 홈런으로 1999년 홍현우가 기록했던 34개 팀 토종 홈런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타점도 127점으로 2003년 이승엽(144타점)과 심정수(142타점)에 이어 프로야구 역대 3위를 기록하는 등 팀 타격부문 1위를 독차지하며 3루를 지켰다.

4 공포의 4번타자 부활

지난해 KIA는 고작 48개의 홈런을 때려내는 데 그치며 팀홈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KIA는 올시즌 8월 한 달에만 43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올 시즌 156개의 홈런으로 전체 3위에 올랐다.

이재주 홀로 두자릿수 홈런(12개)을 기록하며 소총부대로 전락했던 KIA는 올 시즌 5명의 두자릿수 홈런 타자를 배출했다. 부상과 부진으로 지난해 힘겨운 행보를 했던 최희섭은 4번자리를 지키며 위기마다 영양가 만점의 홈런포를 터트렸다. 5번을 지켰던 김상현은 '최희섭 효과'로 많은 기회를 얻으며 최희섭과 타선의 중심이 됐다.

김상현과 최희섭은 각각 36개와 33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며 공포의 중심타선을 구성했고, 2년차 나지완도 23개의 홈런으로 무게를 더했다. 신인 안치홍과 주장 김상훈도 각각 14개와 12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극적인 야구를 선보였다.

5 연패는 5경기 이하

8월2일 1위 수성 이후 꾸준히 자리를 지킨 KIA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위 SK와의 승차를 6.5게임차까지 벌이며 느긋하게 9월을 시작했던 KIA는 9월2일 삼성과의 대결에서 양현종을 내세우고도 2-3의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뒤 로페즈-윤석민-서재응-구톰슨을 투입하고도 연패를 끊지 못했다. 반면 SK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0.5게임차까지 추격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올 시즌 KIA는 특별한 연패 없이 기복 없는 성적으로 81승을 수확했다. KIA는 4월에만 두 차례 3연패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지난해와의 차이는 여기에서 드러났다. 초반의 부진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던 지난해와 달리 KIA는 꾸준하게 승리를 쌓으면서 1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6 6인 로테이션 든든한 선발진

시즌 초 도입했던 6인 로테이션은 KIA의 우승 행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선발진에 비해 전력이 약했던 불펜진을 염두에 둔 조범현 감독의 계산으로 초반 6명의 투수가 돌아가면서 선발 임무를 수행했다. 선발 경험이 적었던 용병 로페즈과 구톰슨은 6인 로테이션 체제속에서 한국 야구에 적응하며 올 시즌 각각 14승과 13승을 책임졌다. 처음으로 풀시즌을 소화한 좌완 양현종도 연착륙을 하면서 12승을 거뒀다. 6인 로테이션으로 출발한 4월 팀의 방어율은 3.13에 불과했다.

선발진은 안정적인 출발과 함께 시간이 갈수록 손영민, 곽정철 등 불펜진이 탄탄해지면서 흔들림 없는 시즌을 보낼 수 있었다.

7 7번 이종범 노장 투혼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이 등장할때면 경기장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 유니폼의 주인공은 시즌 전 은퇴논란에 휘말리며 속 앓이를 해야 했던 '백전 노장' 이종범이다.

이종범은 채종범·이용규의 부상으로 삐걱거렸던 외야를 진두지휘하며 노장의 투혼을 발휘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타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했다. 올 시즌 6개의 홈런을 신고한 이종범은 0.273의 타율로 자신의 17번째 시즌을 마감했다. 최소경기 500도루와 1천득점의 기록도 작성했다.

노장이 앞장선 타선에서 10대의 안치홍은 두 자릿수 홈런을 터트리며 2루를 지키는 등 신·구의 조화가 승승장구의 원동력이 됐다.

마운드에서는 마무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고참 유동훈을 중심으로 양현종·손영민·곽정철 등 신예선수들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8 8월 20승의 기적

KIA의 8월은 뜨거웠다. 삼성과의 경기에서 7-3 승리를 거두며 3연승으로 8월을 출발한 KIA는 8월2일 또 다시 삼성을 제압하며 단독 1위까지 치고 올랐다. 2002년 9월12일 이후 2천516일만의 1위였다.

이후 KIA는 11연승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승을 쌓아가며 시즌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투·타의 완벽한 조화가 8월의 기적을 썼다. 8월 팀 방어율은 3.73, 팀 타율은 0.303이었다. 마운드가 15홈런을 허용한 것에 비해 타자들은 43개의 홈런포를 뿜어내며 그라운드를 달구었다.

유동훈은 8월에만 7과3분의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7세이브를 얻어내며 팀 승리를 지켰고, 김상현은 8월 한 달 0.409의 타율로 15홈런 38타점을 기록하며 공격에 중심이 됐다.

9 만화같은 9회 역전 홈런

KIA는 8월9일 SK와의 군산 홈경기에서 '야구는 9회 2사부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명승부를 펼쳤다. 2-3으로 뒤지던 9회말. 플라이 두 개로 투아웃이 되면서 경기가 패배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한층 강해진 KIA는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상훈이 볼넷을 골라낸 뒤 이현곤·이용규의 연속 볼넷이 나오면서 9회말 2사 만루. 타석에 들어선 김원섭은 SK 정우람의 초구를 받아 우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6-3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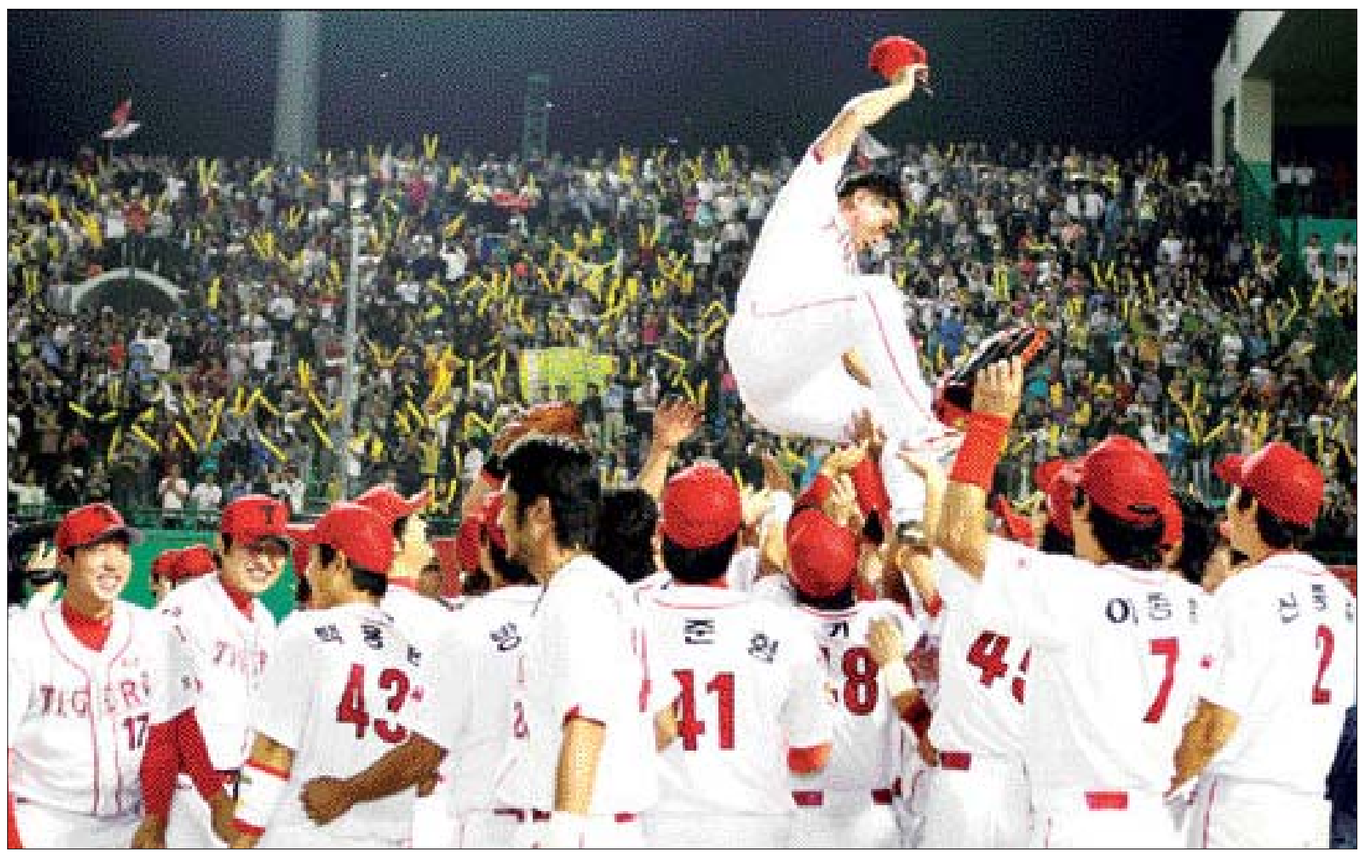
조범현 감독을 비롯해 많은 선수들이 꼽는 올 시즌 최고의 장면으로 팀은 11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시즌 마지막까지 1위 싸움을 벌였던 SK에 상대전적에서 앞서며 정규시즌 우승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10 '10번째 선수' 팬들의 열정

KIA의 1위 행진에는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준 '10번 타자' 팬들의 힘이 있었다. KIA는 올 시즌 팀의 승승장구 속에 21번째 매진을 기록하며 팀 역대 최다관중(58만 2천5명) 기록을 새로 썼다.

히어로즈와의 시즌 최종전이 열렸던 25일에도 광주에는 줄곧 장대비가 내렸지만 9천205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67경기의 원정경기 총 관중 124만219명으로 원정경기 동원관중도 8개 구단 중 최고를 기록했다.

예전 해태시절의 야구를 떠올리게 하는 높은 마운드와 호쾌한 야구가 발길을 끊었던 중·장년층 팬들의 마음을 돌렸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등과 젊은 선수들의 활약속에 유입된 젊은 야구팬들의 호응 덕분이었다. 관중 증가로 구단 캐릭터 상품과 사인볼, 막대풍선 등 상품 판매도 증가, 올 시즌 상품 매출액은 지난해 2억여원 보다 약 100% 증가한 4억여원에 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



12년만에 프로야구 정규리그 정상을 되찾은 KIA 타이거즈는 안정된 마운드, 폭발적인 타선, 신·구 선수들의 조화, 조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팬들의 열띤 응원 등을 원동력으로 삼았다. 지난 24일 군산야구장에서 히어로즈를 꺾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KIA 선수들이 조범현 감독을 헹가래 치며 기뻐하고 있다.